‘이준석 회견’ 여진…윤정부 100일 앞두고 與 내홍 최고조

李, 라디오 출연 ‘윤핵관 때리기’ 여론전 …분열 장기화 전망
당 일부선 “도를 넘었다. 더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저격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지난 13일 ‘작심 기자회견’ 후 이틀이 지났지만, 15일 여권 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한 원 내·외 인사들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로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며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한 데 대해, 당내에서는 물론 중도 보수층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정치판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1년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쓴소리를 했고,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은 지나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 되어 통탄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잠시 쉬는 것이 더 큰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가니 저도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비대위 체제를 출범,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오히려 자중지란이 최고조로 치닫는 대혼돈이 연출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광복절인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25점으로 박하게 매겼다. 이 대표는 책 출간, 방송 출연 등을 계속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분열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런 내분 상황이 지속되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할 비대위 출범과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할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날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 후 심각한 분열 상태에 이른 독립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데 헌신한 김동삼 선생님을 되뇌게 된다”면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다. 김동삼 선생님의 말씀처럼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틀 전 이 대표의 회견을 ’내부 분열‘로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준석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겠는가”라면서도 “양두구육·삼성가노 등의 말은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고 윤 대통령을 개고기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도를 넘어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지지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에서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이XX, 저XX 부분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당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에게 성상납 등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의 제명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 2라운드…여야, ‘시행령’ 8월 국회 뇌관 부상하나

민주 “입법권 훼손”
국힘 “법대로 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둘러싸고 8월 국회에서 여야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권 확대 이슈가 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 및 이후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들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저런 것을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에 대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에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특사 제외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연합뉴스

윤정부 첫 검찰총장 오늘 윤곽

9명 중 3~4명 후보 압축
여환섭·이원석·조종태 등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16일 추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 9명을 추려 추천위에 명단을 통보했다.

현직은 모두 7명이다.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이하 기수 순) 법무연수원장·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전직 검찰 간부들로는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가 총장에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최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법조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원석 대검 차장도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검수완박’ 국면 이후인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윤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능력과 인품 면에서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비윤(非尹)’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라인 인사’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검찰 밖에서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차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장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3~4명을 한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새 총장은 내달 중순께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